

09

September 2025  
vol. 290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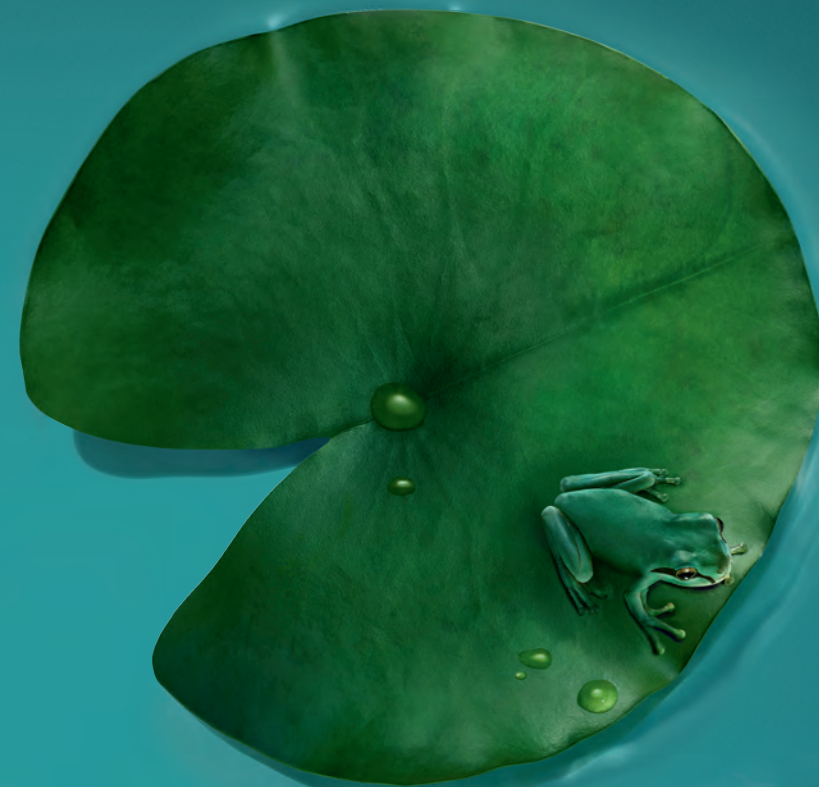
Timeless Autumn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lowerlace**  
Clip pendant





Hermès, drawing on your mind







# Contents

SEPTEMBER 2025 / ISSUE.290

- 10\_ **SELECTION 1** 윈드브레이커와 경쾌한 스커트, 가을 무드를 더해줄 스니커즈와 토트백으로 완성한 에너제틱한 스타일.
- 11\_ **SUBTLE SPACE** 덜어내고 비워 형태적 조형미를 강조한 오픈워크 링 8.
- 12\_ **SELECTION 2** 브라운과 카키, 베이지 등 초가을 컬러 팔레트로 물든 데일리 스포티 룩.
- 13\_ **SMALLER IS BETTER** 작아졌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춘 30mm대 워치 셀렉션.
- 14\_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6\_ **‘장터’를 넘어선 문화도시의 ‘작은 판’으로서의 플랫폼** 이제 4년 차를 맞이해 내년이면 5년의 동행이 앞당겨지는 ‘키아프리즈’가 파트너십의 2라운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따로 또 같이’ 방식의 아트 페어 동맹이 불러온 의미 있는 변화와 플랫폼으로서의 지속성 있는 경쟁 우위를 곁써본다.
- 18\_ **응시로 시작하는 여성의 연대, 콤플렉스에서 프라이드로** 문화와 미술에서 여성의 서사와 연대가 두드러지는 요즈음, 정체성, 젠더, 인권 등을 다루며 ‘몸을 응시하고 인간의 유한한 삶을 확장하는 여성 작가들의 전시가 ‘키아프리즈’ 기간에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 19\_ **EXHIBITION IN FOCUS** 소중한 책들처럼 곁에 두고 싶은 ‘another’ 예술을 소개하는 ‘키아프리즈’ 기간에 열리는 현대미술가들의 비밀 기지 같은 전시가 예술 애호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24



16



10



32



올해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하우스 오브 웬더스(House of Wonders)'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오데마 피게. 더불어 또 하나의 신제품 위치인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플라잉 투르비용'을 공개한다. 38mm 사이즈에 셀프와인딩 플라잉 투르비용을 적용해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문의 02-543-2999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시오.  
stylechosun.co.kr

#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경진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얀 stylechosun.khy@gmail.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n@chosun.com  
디자인 나스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탁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jewelry  
for  
your  
home

# MUHE

Floral Design  
Handcrafted Flower Vase Collection  
32, Hyoryeong-ro, Seocho-gu, Seoul  
www.mu-he.com  
instagram@muhe.official





가을 분위기를 배가해줄  
송아지가죽 소재의 더 랄프  
토티백 5백5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18K 로즈 골드 0.39캐럿  
다이아몬드와 로돌라이트로 꽃잎을  
형상화한 플뢰르 드 하와이 이어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발수 원단과 포플린 소재로 제작한 라버셔를 윈드브레이커 재킷 1백48만원 **위크엔드 막스마라**.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은 2025 클래식  
100UL V3 롤랑 가로스  
37만9천원 **윌슨**.



아세테이트 소재의 오벌 프레임이 돋보이는  
니나쉬 PC15 33만원 **젠틀몬스터**.



핑크 머더오브펠 다이얼과  
베젤, 스트라이프 스트랩을  
더해 생동감 넘치는  
매력을 전하는 피프티  
패덤즈 오토매틱 38mm  
2천5백33만원 **블랑팡**.



장마철이나 소나기가 내릴 때 필요한 발수·방수 소재의 레이싱 햇 27만원 **퓨잡**.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퓨잡** 02-6905-3708 **펜디** 02-544-1925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위크엔드 막스마라**  
1661-4841 **몽블랑** 1877-5408 **루이 비통**  
02-3432-1854 **포멜라토** 0030-8321-0441  
**롤루레온** 02-6203-0199 **윌슨** 02-515-1318  
**블랑팡** 02-3479-1833 **발렌티노** 02-2015-  
4655 **젠틀몬스터** 1600-2126



로제트한 사이드로 휴대성이 좋은 버건디 레드  
마이스터스톡 카드 홀더 5cc 70만원 **몽블랑**.



테니스채를 들고  
있는 디테일을 더한  
비비엔 패셔니스타  
백 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 for her Selection

윈드브레이커와 경쾌한 스커트, 가을 무드를 더해줄 스니커즈와 토트백으로  
완성한 에너제틱한 스타일.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세공 기술로 탄생한  
체인 스타일의 이코니카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포멜라토**.



원치 못했지만 한 손으로 다룰 수 있는  
다회용 드링크블 17oz, 5900원 **루이비통**.



핸드메이드로 드레이핑한 바스크 디테일의 스커트 5백10만원대 **발렌티노**.

에디터 신혜진



(위부터 차례대로) **키린 울루 인터너티 링** 행운을 상징하는 조롱박  
셰이프를 규칙적으로 나열해 리드미컬하게 구성했다. 7백87만원.  
문의 02-2118-6228 **그라프 버터플라이 실루엣 컬렉션 더블 파베  
다이아몬드 링** 화이트 골드 나비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으며 오픈 밴드 스타일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1천1백62만원, 문의 02-2150-2320 **불가리 피오레버 링** 나선형  
다이아몬드 밴드에 다이아몬드 소재의 꽃잎 모티브를 볼드하게  
장식했다. 2천5백만원, 문의 02-6105-2120 **프레드 포스텐 링** 옐로  
골드 소재의 닷 고리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티파니 T 트루 8mm** 링 뉴욕의 교차로에서  
영감받아 로즈 골드 직선과 곡선의 조합이 특징이며 각도에 따라  
건축적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디올 파인주얼리 꾸뛰르 디올 링** 그물 형태의  
화이트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 꽃 모티프 등을 비규칙적으로 세팅해  
구조적인 실루엣을 강조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타사키 코멧 플러스 다이아몬드 파베 링** 화이트  
골드와 아코아 진주, 다이아몬드를 통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주의  
해성을 표현한 컬렉션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58 **다미아니 벨  
에포크 링** 옐로 골드와 원과 직사각형을 교차해 특유의 경쾌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02-515-1924 에디터 **김하얀**



# Subtle Space

의도적으로 덜어내고 비워 형태적 조형미를 강조한 오픈워크 링 8.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매달린 그래픽 패턴 소재에 LV  
플라워 패턴을 더해 베이스를  
블루톤 가죽미장 루이비통.



다이얼과 러버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는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1천6백만원대 오메가.



브랜드 로고가 각인된 빈티지한 농구 팬던트  
네크리스 1백20만원대 프라다.



옥타곤 세이프에 실버 블랙 크리스탈 스트림  
장식이 특징인 텍스테라(Dextera) 링  
20만9천원 스위로브스키.



해트락 스카프 디테일이 어우러진 벨트 3백50만원대 마우마우.

# for him Selection

브라운과 카키, 베이지 등 초가을의 컬러 팔레트로 물든 데일리 스포티 룩.  
활동적인 계절을 위한 감각적인 셀렉션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몽클레르 x 길가땀 디자인 by 도널드글로버 컬렉션 니트 버니 1백70만원 몽클레르.



레트로 스포츠 무드를 더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벨(wel) 코튼 플린트 셔츠 30만원 구찌.



아외 활동 시 강력한 햇살을  
차단해줄 반투명 그린 렌즈 선글라스  
61만2천원 올리버피플스 by  
에실로룩소티카.



블랙 및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포스텐 브레이슬릿 5백44만원 프레드.



외부 히트 포켓이 있어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백팩, 29×44×16cm,  
1백66만원 리모와.



스타일에 포인트를  
더해줄 코튼 소재의 멘즈  
로장지 스카프 99만원  
에르메스.



키튼 스킨 소재의 키 홀더링  
39만원 몽클레르.

내일은, 스웨이드 및 가죽으로 재질해  
가볍고 편안한 트윈오픈 케이스로  
레이스업 신스니커즈 1백55만원 켈빈느.



임팩트 있는 그래픽 디자인이 돋보이는  
에디터 섹정민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세론 콘스탄틴  
트래디셔널 매뉴얼 와인딩 설립 27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매종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기하학적 패턴을 새긴  
은은한 실버 톤 다이얼이 매력적. 지름 38mm 케이스에  
950 플래티넘 소재로 완성하고 매뉴팩처 칼리버 4400  
AS/270을 장착했다. 5천7백만원. 문의 1877-4306  
IWC 인제니어 오토매틱 35 기종 인제니어 모델의  
케이스 사이즈를 35mm로 축소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요소, 비올, 마감을 완벽하게 구현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그리드 패턴 다이얼로 마무리해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는 매력적인 피스. 47110 칼리버로  
구동한다. 1천4백80만원. 문의 1877-4315  
까르띠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다이얼의 둥근 모서리,  
곡선형 혼, 스크루, 실버 태양 광선 모티브 다이얼 등 기존  
산토스 워치가 지닌 요소를 담아 스물 사이즈로 출시한 버전.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9백만원대. 문의 1877-4326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30MM 브랜드의 유서  
깊은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아이코닉한 타임피스가 30mm  
사이즈로 재탄생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라벤더 컬러 태양광 패턴의 틴트 레거 다이얼을  
매치해 시선을 끈다. 9백만원대. 문의 02-6905-3301  
샤넬 워치 J12 블루 칼리버 12.2 33MM 무광 느낌이 나는  
샤넬만의 독특한 매트 블루 세라믹이 돋보인다. 베젤에는 같은  
소재의 바게트 컷 세라믹을 적용하고 다이아몬드 인디케이터로  
마무리해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프로스티드 골드 셀프와인딩 마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듯 반짝임을 극대화한 프로스티드  
골드로 마감한 34mm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특징. 다이얼  
역시 크리스탈 샌드 마감으로 통일감을 부여했다. 자동식  
칼리버 5800으로 구동한다. 1억3만원. 문의 02-543-2999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오토매틱 브랜드의 DNA이자 다이아  
워치의 표본인 모델로 38.2mm 케이스 사이즈로 선보인다.  
다른 워치에 비해 다소 큰 감이 없지만 이 모델을  
30mm대로 줄인 것은 나름 파격적이다. 젊은 남성의  
손목이나 여성의 손목에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한다.  
2천6백64만원. 문의 02-3479-1833 에디터 정정민



# Smaller is Better

작아졌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춘 30mm대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 INSIGHT



### Very Charming

아이코닉한 럭셔리 백의 감성을 그대로 담은 마이크로 백 참.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스카이 블루 컬러로 가볍게 화사하면서 귀여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캘리페스티벌 백 참 4백34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프라다의 리나일론 백팩을 미니버저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니 아이콘 리나일론 백 참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백을 오마주한 디자인의 가죽 백에 네이비 컬러 레터링과 핸들 장식이 특징인 LV 미니 쇼퍼 백 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이어폰, 카드 등 작은 필수품을 수납하기에 좋은 클래식 미니 백 참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 Rebirth of Big Bang

올해 위블로는 브랜드를 일리게 된 가장 큰 시작점인 박병 컬렉션 탄생 20주년을 맞이해 역사 속에서 꺼내온 박병 오리지널과 현재의 박병 유니코를 결합한 다섯 가지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그중 박병 20주년 기념 풀 메직 골드는 위블로가 스크래치에 취약한 골드를 보강해 만든 새로운 골드 소재로 완성한 피스, 알반 옐로 골드와 다른 빛깔을 띠는 케이스는 43mm로 시원한 가독성을 자랑한다. 다이얼은 격자무늬로 각인한 새틴 마감 카본 효과를 주어 독특한 느낌을 배가했다. 베젤에는 아이코닉한 6개의 스크루로 마무리해 위블로의 유산을 보여준다. 약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MHUB1280 20주년 유니코 매뉴팩처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로 구동한다. 문의 02-540-1356



### Promise You

영원한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을 표현한 그래프의 '브라이덜 주얼리 컬렉션'. 다이아몬드에 진심인 브랜드인 만큼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직접 선별하는 것은 물론, 스톤 본연의 광채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숙련된 장인들이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완성한다. 그중에서도 독특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에메랄드 컷의 '프로미스 인게이지먼트 링',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밴드에 금직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프로미스 라운드 인게이지먼트 링'을 추천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 Jewelry for Your Home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지금, 무헤(MUHE)는 'Jewelry for Your Home' 캠페인을 통해 공간을 장식하는 또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컨템퍼러리 글라스 웨어 브랜드 주(JUJ)의 베이스 컬렉션은 유려한 곡선과 깊이 있는 색감으로 어쩔 곳이란 안정감 있게 감싸며 오브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무헤는 주(JUJ)의 작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개하는 리테일러로, 2백여 년의 헤리티지를 이어온 오스트리아 크리스탈러리 로브마이어(LOBMEYER)의 영롱한 화병 역시 무헤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다가오는 열정과 공연, 행사 시즌을 앞두고 호접란과 함께 선물한다면 한층 품격 있는 기프트가 될 것이다. 꽃과 유리 오브제의 조화로 공간을 특별하게 채워주는 무헤의 소름 예약 방문 구매 시 소정의 혜택도 마련되어 있으니, 일상에 작은 변화를 더하고 싶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다. 문의 www.mu-he.com



### Only For Winter

몽클레르 '알티브 미드(Altive Mid)'는 아웃도어 신발을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게 특별히 제작한 겨울 부츠다. 스노 부츠에서 영감받아 보온성이 뛰어나며 곳곳에 기능적인 디테일이 가득하다. 패딩 나일론 어퍼,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에 탁월한 비브람 아웃솔,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슈즈 레이스 등을 갖췄다. 컬러 역시 뉴트럴 베이지, 패일 로즈, 카키, 블랙으로 다채로운 편. 더 자세한 내용은 몽클레르 매장 및 공식 웹사이트(moncler.com)에서 확인해보자.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794



### Another Level

올해로 창립 150주년을 맞이한 오데마 피게. 늘 창의적인 미학을 기반으로 한 컴플리케이션 워치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온 이 워치 메저는 오랜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워치를 공개한다. 바로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플라잉 투르비옹, 은은한 샌드 컬러의 18K 골드로 완성했으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레그와 케이스 옆면 등에 조화롭게 매치해 우아함을 발산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메조 최초로 38mm 사이즈에 셀프와인딩 플라잉 투르비옹을 적용한 것. 이는 정교한 미학과 최첨단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한 초박형 RD#3 무브먼트인 칼리버 2968을 장착했기에 가능했다. 이 차세대 소형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데마 피게는 워치메이킹 역사에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남겼다. 문의 02-543-2999

### The New Touch of Perfection

메이크업 완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정 없이 매끈한 피부다. 샤넬 뷰티가 새롭게 선보인 '뿌드르 워너베르셀 온더고 루스 파우더'는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줄 수 있어 메이크업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준다. 특히 실크 베일처럼 가볍게 밀착되어 유분기를 정돈하고 피뽕결을 매끈하게 다듬으며, 투명하게 빛나는 자연스러운 피니시를 선사한다. 이번 신제품은 '온더고(On-the-Go)'라는 이름 그대로, 휴대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원하는 만큼 커버력을 조절할 수 있는 퍼프와 거울이 내장된 휴대용 디자인은 이동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뿌드르 워너베르셀 온더고 루스 파우더로 결정 없이 매끈하고 화사한 피부 자신감을 경험해보자. 6g, 9만2천원. 문의 080-805-9638



### Eternal Embrace

유려한 곡선과 디테일로 손목을 감싸안은 포인트 뱅글 5.

## PERFORMANCE



### 슬립노모어(Sleep No More), 서울 입성!

'늦설지만 어느새 빠져든다!' 정해진 좌석도, 시나리오도 없는 '슬립행(이머시브) 시어터'라는 장르로 현대 공연 예술의 새 정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슬립노모어(Sleep No More)>가 서울에서도 힘차게 관객몰이를 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스타일의 서스펜스물로 재구성했다는 이 작품은 영국의 창작 집단 핀치드링크가 선보인 논버벌(non-verbal) 퍼포먼스로 런던에서 첫선을 보인 뒤 뉴욕(미국)과 상하이(중국)에 진출해 누적 2백65만 명 규모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서울 공연은 총무로를 상징하는 옛 대한국장을 개조한 매킷ان 호텔을 통째로(7층) 무대로 삼는데, 1930년대 스코틀랜드를 섬세하게 재현한 다채로운 공간을 다니며 자신만의 관람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관객은 마스크를 쓴 채 배움을 따라가게 되는데, 1대 1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동선 선택에 따라 어떤 여정이 달라지기에 재관람률이 높은 공연이기도 하다. 수동적 관람이 아니라 배우들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몰입형 체험은 3시간의 긴 공연 시간을 어느새 소화하게 만든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우들을 정선없이 따라다니다 보면 절로 운동이 되므로 '다이어트 연극'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티켓은 필수 홈페이지 <https://themckithanhotel.com> 글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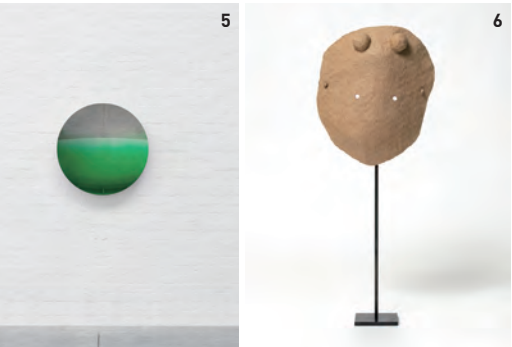
# ‘장터’를 넘어선 문화도시의 ‘작은 판’으로서의 플랫폼

지구에 길고도 짙은 그늘을 드리웠던 팬데믹이 마침내 수그러들면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이뤄진 2022년, 세계적인 아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단연 글로벌 미술계를 들썩이게 한 행보였다. 지금과 달리 전반적으로 미술 시장이 뜨겁게 타올랐고, 이미 팬데믹 전부터 아시아 시장의 ‘문화·예술 허브’라는 타이틀을 둘러싸고 여러 도시가 상당히 공을 들여왔기에 프리즈의 아시아 허브가 된 서울은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프리즈 효과’를 향한 기대감도 부풀었지만, 진출 방식이 한국 미술 시장을 대표하는 아트 페어인 키아프(Kiaf Seoul)와의 공동 개최였기에 불멘소리로 불거졌다. 사실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2003년) 프리즈보다 오래된 업력을 지닌 키아프(2001년)지만 ‘브랜드 파워’에서 밀릴 게 뻔한데, 어쩌서 안방을 순순히 내주느냐는 것이었다. 이제 4년 차를 맞이해 내년이면 5년의 동행이 일단락되는 ‘키아프리즈’가 아직 파트너십의 2라운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따로 또 같이’ 방식의 아트 페어 동맹이 불러온 의미 있는 변화와 플랫폼으로서의 지속성 있는 경쟁 우위를 곁써본다.



플랫폼에 참가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 (플랫폼 전략)(히라노 아쓰시 캡, 안드레이 하쿠)

언젠가 홍콩에서 열린 아트 바젤(Art Basel Hong Kong) 행사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목적지 근처에서 교통 체증이 유난히 심해지자 택시 기사가 내뱉은 푸념을 접한 기억이 있다. “대체 이 글로벌 아트 페어라는 건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길래, 대단한 파티나 콘서트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거냐”던 그는 소시민들이 꾸려가는 평범한 일상과의 간극을 꼬집었다. 당연히 아트 페어는 파티도, 영화제도, 콘서트도 아닌, 현대 미술을 주 상품으로 내놓는 장터(marketplace)다. 어찌 보면 그림 한 점, 조각 한 점 사는 게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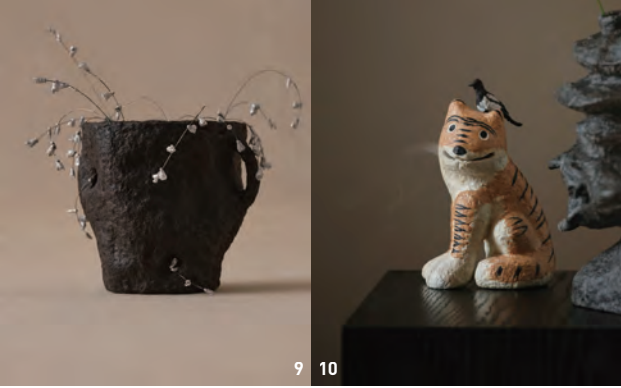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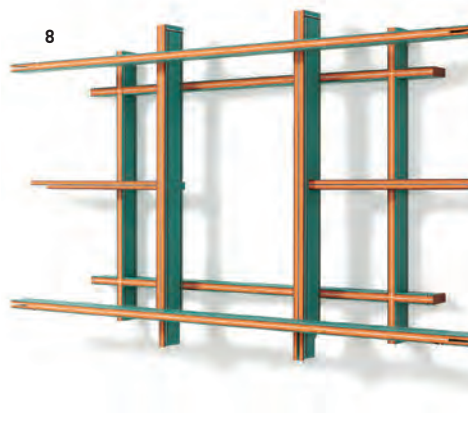


그리 대수라고 온갖 미디어에서 떠들어대고, 하늘길을 건너 찾아오는 다국적 손님(컬렉터)들을 유혹하고, 대단한 구경거리라도 등장한 듯 비단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구경꾼으로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걸까. 일찍이 발터 베나민 같은 명민한 학자가 지적했듯 이 같은 풍경은 소비문화에 휩쓸린 도시가 빚어내는 씁쓸한 신화의 단면일 수도,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있지만, 그저 경제적인 득실만 따지면 그 뿐인 단순한 비즈니스의 장(場)은 아니다. 문화 예술 생태계만 놓고 보면 다분히 진조하게 비쳐졌던 홍콩의 소프트 파워와 이미지를 확연히 바뀌놓은 핵심적 동력, 그리고 필자에게도 동양과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결합으로 특수한 정체성을 띤 이 도시의 묘한 매력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 계기 역시 바로 글로벌 아트 페어였다. 문화도시로서의 짜임새와 에너지를 끌어올려 다른 차원의 ‘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다름 아니다.

**#플랫폼 시대의 무한 경쟁과 문화도시의 선망**  
그 전환의 파도가 팬데믹의 스러짐과 발맞춰 우리에게 수도 서울에도 찾아왔다. 2013년 스위스 MCH 그룹이 홍콩 아트 페어를 인수해 아트 바젤 홍콩으로 거듭나게 했던 데 반해, 키아프(Kiaf)와 프리즈(Frieze)는 ‘동맹’을 택했다. 각자의 플랫폼을 유지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지만 개최 시기(9월 초)와 무대(코엑스)를 함께하고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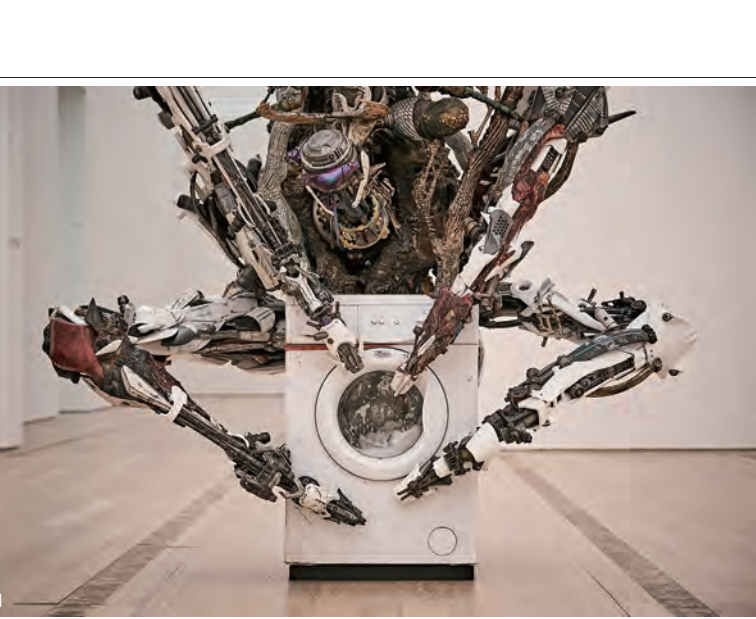
1. 올가을 프리즈 서울에 처음 참여하는 스페인 갤러리 알바란 부르데(Albarrán Bourdais)에서 출품하는 멕시코 작가 호세 다빌라(José Dávila)의 작품 ‘Homage to the Square’(2023). 2. Jérémy Demester, ‘FTW XVII’(2025)(알바란 부르데 출품작). 3. SAC 갤러리(태국)가 프리즈 서울에서 선보이는 프라파트 지와랑산(Prapat Jiwarangsan)의 작업 ‘기생 가족 no.3’(Parasite Family no.3)(2024). 4.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불가리가 3년 연속 공식 후원하는 상,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의 올해 수상자인 임영주의 3채널 영상 설치 작품 ‘Calming Signal’(2023/2025). 이미지 제공, 불가리 5. 국제갤러리의 키아프 출품작인 애니시 카푸어의 Organic Green to Clear(2016) © Anish Kapoor. All rights reserved DACS/ SACK, 2025 Photo by Anish Kapoor Studi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6. 갤러리현대의 키아프 출품작인 아슬기 작가의 ‘K’(2011~2018). Courtesy the artist and Gallery Hyundai. 7. 탕 캔템포라리의 키아프 출품작인 타이드(Tide)의 ‘Drifter 1’(2025). 8. 주목할 만한 차세대 작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2025 Kiaf Highlights’ 최종 10인에 선정된 김아라 작가(김리아갤러리)의 작품 ‘Untitled-Connection #5’, ※ 1~2, 3, 7, 8 이미지 제공, 알바란 부르데, 프리즈 서울, 탕 캔템포라리, Kiaf SEOUL(순서대로)

타케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따로 또 같이’ 노선을 꾸리는 방식이었다. 사실 프리즈로서는 ‘무혈 입성’이 마찬가지였다. 엄연히 로컬이 아니라 국제적 페어를 지향하는 터줏대감(키아프에 직격탄을 날린다는 이미지의 손상 없이 친화적인 공동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디자인과 예술 산업을 아우르는 생태계에서도 멀리 마켓플레이스 전략은 기업의 팽창과 생존을 위한 필수 행보가 된 지 오래다. 예컨대 스위스 바젤을 모태로 한 아트 바젤이 홍콩, 마이애미(미국), 파리(프랑스)로, 프리즈는 최대 시장인 미국의 동·서부(뉴욕, 로스앤젤레스), 서울로 각각 플랫폼의 다각화를 이뤄냈고, 디자인계 최대 행사인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Salone del Mobile Milano)도 모스크바, 상하이에 플랫폼을 확장시킨 데 이어 내년엔 중동(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할 예정이다. 소비자(컬렉터)와 화랑을 연결하는 아트·디자인 페어는 엄연한 플랫폼 비즈니스지만 우리가 흔히 일컫는 플랫폼 생태계의 공통인 이른



바 MANGO(Microsoft, Amazon, Netflix, Google, OpenAI)가 누리듯 다수의 클릭과 구독에 힘입은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할 만한 비즈니스 영역은 아니다. 온라인 거래 규모가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물리적 공간과 제품이 필수이며, 워낙 관계성이 중시되며 ‘미술 권력’이라 할 정도로 큰 손의 비중이 큰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시의 세계에서 선풍되는 문화도시라는 위상과 긴밀히 연결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브랜드 파워를 지닌 글로벌 플랫폼, 그리고 컬렉터 숫자가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포용력이라는 맥락에서 이미 잠재 수요가 꿈틀거리고 있던 도시가 만났을 때 어떤 파급효과를 거두는지 우리는 ‘키아프리즈’ 첫해부터 목격했다. 내로라하는 럭셔리 브랜드를 위시해 패션, 자동차, 그 밖에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브랜드의 후원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키아프리즈 주관을 전후로 동네별로 펼쳐지는 수백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는 문화도시의 요건인 자발적 예술의 장의 면모를 보여준다. 올해도 열리는 한남 나이트(9. 2), 청담 나이트(9. 3), 삼성 나이트(9. 4) 같은 유기적 행사는 그 역동성에 놀라는 해외 관람객들만이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도 즐거운 발견의 장이다.

**#우리는 어쩌서 ‘키아프리즈’라 부르지 않을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기 있는 서울의 문화 신(scene) 자체가 배경이 되고 있는 지금, 프리즈 서울이 그 일부가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리즈 서울의 디렉터 패트릭 리는 지난날 말 열린 ‘키아프 × 프리즈 서울(Kiaf SEOUL × Frieze Seoul) 2025’ 공동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의 ‘공생적인 파트너십’이 이어져 앞으로 아시아 미술 생태계의 깊이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더 성장할지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아트 피플의 방한이 잦아지는 가운데 해외의 다양한 갤러리들이 아예 지점을 꾸리든 팝업으로도 입성하고, 여러 브랜드들이 창조적 후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재발견과 더불어 세계 무대 진출도 활발해졌다. 안 그래도 서울의 인지도는 물론 도시 자체에 대한 관심도와 호감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요즘, 이렇듯 문화 예술계에서 전개되는 대형 이벤트의 미학은 긍정적인 기운을 더해준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진화가 가능한 상생의 플랫폼일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보다 치열하게 고민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과연 ‘프리즈’라는 레이블을 떼어냈을 때도 초라하지 않을 만한 독자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그동안 키워냈을까? 9월의 아트 주관을 겨냥해 이를 연결 짓는 축제명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키아프리즈’라는 별칭도 쓰이지만 생태계 바깥에 걸친 대다수 사람들은 물론 미술계 인



9, 10 ‘2025 예술 × 사설’ 프로젝트에 선정된 올해의 장인과 젊은 공예인의 합작품. 재단법인 예술이 2022년부터 4년째 한국 공예 가치를 알리고 증진하기 위해 사설과 함께 펼치는 프로젝트. 한국 전통 속 ‘임사이름’ 각인 지호공예의 대가 박갑순(무형유산)과 금속공예가 이윤정이 각자의 작품은 물론 종이와 금속이 묘하게 어우러진 합작품들도 양태오 디자이너와 협업한 전시 〈자연, 즉 스스로 그려함〉에서 선보인다(서울 북촌 예술의 전시 공간에서 오는 10월 11일까지). 이미지 제공, 예술 × 사설 11 아드리안 비아로 로하스, ‘상상의 종말 VI’, 2024, 482×420×260cm(스위스 바젤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 설치 모습, 2024). 작가 제공. Photo by Jörg Baumann 대규모 장소 특정적 설치 작업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작가 아드리안 비아로 로하스(b. 1980)의 첫 개인전이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다(2025. 9. 3~2026. 2. 1). 12 연여인, ‘Don’t be grime’, 2025, Oil on canvas, 97×97cm.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디아(DIA) 캔템포라리에서 열리는 연여인 작가의 개인전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출품작. ‘방’과 ‘집’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회화적으로 탐색한 신작 15점을 선보인다. 이미지 제공, DIA 1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진행 중인 김창열(1929~2021) 작가 회고전 ‘풍경, 키아프리즈 기간에 맞춰 개작한 이 회고전은 작가를 상징하는 ‘물방울’ 회화의 근원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1백20여 점을 선보이며, 뉴욕 시기의 회화 등을 포함해 미공개 작품 31점이 포함돼 있다. 14 프리즈에서 서울 도심(악수동)의 주택을 개조해 연중 운영하는 전시 공간으로 마련한 ‘프리즈 하우스 서울’ 외관(렌더링). 세계적인 건축 스튜디오 사나(SANAA)의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지 제공, 프리즈 서울 15 미국 뉴욕 소호와 첼시의 전성 시대를 열었던 유서 깊은 플라 쿠퍼 갤러리의 팝업 전시 공간(6월 말). 올해는 프리즈 서울에 참가하지 않지만 한국 애호가들과 보다 친밀한 접점을 만들고자 이름지기재단에서 ‘토코 & 전시’ 행사를 꾸렸다. Photo by 고성연

**#동시대성이 흐르는 ‘글로벌’한 놀이터를 향해**  
물론 키아프의 외연과 내연도 성장세를 타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단 규모를 보자면 미술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단독 개최했을 당시 참여 갤러리가 1백64개 수준이었는데, 작년엔 2백6개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양적 성장이 아닌 내실을 기하겠다는 방향성 아래 20여개국 1백75개 갤러리가 참여한다(프리즈 서울은 작년과 비슷한 1백20여 개 수준을 유지한다). 둘을 합치면 세계 최강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의 원조인 바젤 페어(ABB)와 맞먹는 규모다(위성 페어를 제외한 기준으로). ‘글로벌’의 속성을 점차 따어가고 있기도 하다. 키아프 참여 갤러리들 중 3분의 1 가까이(올해



기준 27~28%)가 해외 갤러리고, 프리즈의 경우에는 국내 갤러리가거나 국내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갤러리의 비중이 35%다. 키아프에서 인정했듯(24년이라는 “역사성이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일부 회원 갤러리들은 새로운 심사 기준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시선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한국 화랑협회 감성홍보이사)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키아프는 ‘공진(resonance)’이라는 주제를 내걸고(공식 테마를 발표한 건 처음) 프리즈와의 시너지를 모색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사실 플랫폼의 장외 풍경을 보면 이미 학습 효과가 여가지에서 드러난다. 대안 공간부터 비영리 기관, 갤러리, 미술관을 아우르는 미술 생태계에서는 갤러리-브랜드, 갤러리-갤러리, 갤러리-기관, 브랜드-기관 등 저마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합종 연횡을 모색하며 느슨한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올가을에는 예년에 비해 여러 결의 한국 작가들을 알리는 기획이 눈에 많이 띈다.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매개의 판은 플랫폼이지만, 그 안에서 무수한 연결 고리를 꿰는 역할의 지휘봉은 결국 사람이 쥐고 있다. 경제심을 늦추다 가는 순식간에 플랫폼의 지배에 놓이고, 고객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올가미에 얽매일 수 있지만, 플랫폼 자체도 얼마든지 망가지거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결국 연결의 리타가 되도록 전략을 짜되, 플랫폼 생태계에 속한 이해관계자들의 ‘본원적 욕구’라는 원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결국 그건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콘텐츠가 아닐까. 글 고성연





Kiaf  
SEOUL x Frieze Seoul  
2025

응시로 시작하는 여성의 연대,  
컴플렉스에서 프라이드로

한 줄 한 줄 치열하게 꿰어가는 ‘여성들의 서사와 연대’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문학과 미술에서 여성의 서사와 연대가 두드러지는 요즈음, 정체성, 젠더, 인권 등을 다루며 ‘몸’을 응시하고 인간의 유한한 삶을 회상하는 여성 작가들의 전시가 ‘키아프리즈’ 기간에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의 대규모 개인전 〈루이즈 부르주아: 덧없고 영원한〉(호암미술관, 2026년 1월 4일까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불(b. 1964) 작가의 큰 흐름을 조망하는 〈이불: 1998년 이후〉(리움, 2025. 9. 4~2026. 1. 4),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시간을 사유하는 치하루 시오타(b. 1972)의 개인전 〈Return to Earth〉도 진행 중이다(가나아트센터, 9월 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박스에서는 ‘MMCA × LG OLED’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인공 추수(b. 1992)의 전시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이 열리고 있는데(2026년 2월 1일까지), 우뚝가사리 위에 이끼를 길러내는

독특한 설치물 ‘아가몬’이 자라나는 생태 환경은 ‘엄마’를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거대 서사를 기대하게 한다. “신체는 들여다볼수록 작품이 된다”고 말하는 우한나(b. 1988)의 개인전 〈품새 POOMSAE〉(G 갤러리, 9월 27일까지)도 있다. 불안전함 속에서 중심을 찾아가는 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치열한 삶의 흔적이 과학자처럼 날카롭게 증명된 듯한 그들의 작업은 어떤 식으로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그녀들의 컴플렉스가 프라이드로 바뀌면서 삶도 아름다워졌을까?



“매일 뭔가 잃도록 하라, 열쇠를 잃거나 시간을 허비해도 그 낭패감을 잘 견뎌라. 잃는 기술을 숙달하긴 어렵지 않다. 그러고는 더 많이, 더 빨리 잃는 법을 익히라. 장승은, 이름은, 여행하려 했던 곳이란 상관없다. 그런 건 아무리 잃어도 재앙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비숍의 하나의 기술에 나오는 시구(詩句)처럼, 매일 무언가를 버리거나 잃으면서도 시간을 ‘회상’하고 싶어지게 하는 예술 작품이 있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추억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감정의 기록은 현재를 사는 데 도움을 주니까. 하지만 옛날을 그리워하는 생산성 없는 노스탤지어와는 구분하고 싶다. 나는 허무주의자가 아닌 실존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유년기의 기억과 트라우마를 출발점으로 삼은 루이즈 부르주아처럼 자신의 한평생 기억을 되살리며 작업하는 여성 작가들이 있다. 그녀들의 작품 앞에 서면 자연스레 기억을 되돌리고 싶어진다. 무척 예뻐 보이는 작품은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전복이 숨어 있다. 게다가 그녀들은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밝히지 않는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한 영상에서 질문자의 대답에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를 연발하며 손바닥만 비벼댔고, 이불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하는 어느 강연 프로그램에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퍼포먼스만 했다. 그녀들은 그저 어딘가에서 쉴 새 없이 갈등하고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라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응시한다.’ ‘응시’에는 사유가 따르게 마련이다. ‘몸’을 응시하며 보편적인 것들의 위선과 위양을 들춰내는 작업을 일삼지만 혁신적인 미적 감각을 타고난 그녀들은 다양한 매체를 가로지르며 삶과 죽음, 미와 추, 세속과 신성, 실재와 꿈을 이야기한다. 어떤 식으로든 몸의 회복과 해방을 시도하면서 신체를 감싼 주변 환경에 주목한다.



1 미국 뉴욕 자택에 있는 루이즈 부르주아(2003). Photo by 낸다 램프랭크 © The Easton Foundation/Licensed by SACK, Korea 2 루이즈 부르주아의 ‘마당’(1999), 2023 년 호암미술관 야외 정원 설치 모습. 이미지 제공, 호암미술관 © The Easton Foundation/Licensed by SACK, Korea 이번 호암 전시는 작가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3 우한나 작가의 ‘Tinkerbell Tooth’(팅커벨투스)(2025). 이미지 제공, G Gallery. 우한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결핍과 상실, 복귀를 외면하지 않는 몸의 태도를 보여준다. 4 치하루 시오타의 ‘Return to Earth’, 2025. Installation: Rope, earth. 천장에서 바닥까지 얹혀 내려오는 검은 실과 흙더미를 공간에 설치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의 개념을 보여주는 작품. 5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 전시된 추수 작가의 ‘Agammon’, 2025. Agar, moss, piercing, 15×13×18cm, in Collaboration with Independent Garden. 추수는 생명 창조와 연결된 여성의 육구와 순환을 주제로 디지털 생명체를 아름답게 표현한다. 6 이불 © Lee Bul. 사진, 유형문, 이미지 제공. 호암재단 7 이불, ‘몽그랑레사: 바위에 흐느끼다’(2005). © Lee Bul. 모리 미술관·작가 제공. 〈Lee Bul: From Me, Belongs to You Only〉, 전시 모습, 모리 미술관, 도쿄, 2012. 사진, 와타나베 오사무



내 것이 아닌 열망을 떠나보내는 회상 루이즈 부르주아는 한 평생 과거를 ‘응시’했다. 그녀의 내면 세계까지 보이는 전시 〈루이즈 부르주아: 덧없고 영원한〉은 한국에서 25년 만에 열리는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 평론가 루시 리파드는 그녀에 대해 “독립과 의존, 포용과 배척, 공격성과 연약함, 질서와 혼돈 사이에 몰두한다”고 평했다. 한 인간이, 한 여성이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서사가 그녀의 작품에 담겨 있는 듯하다. 사랑에 대한 회상은 상실 대상에 대한 애도 작업인 것처럼 그녀의 ‘회상’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슬픔으로 다가온다. 루이즈 부르주아를 생각나게 하는 치하루 시오타는 자신의 ‘몸’에 좀더 집중하는 작가다. 두 번의 암 투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직접 경험한 그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는데 ‘실’이라는 재료로 몸과 닮은 흔적을 찾는다. “장기들과 나라는 존재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지 못했는데, 아프고 나서 살아란 무엇일까 의문을 가졌다. 신장 이식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이식받은 후 갑자기 생선이 좋아진다고 하더라. ‘음식 취향까지 장기로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나이고 어디까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기자 간담회에서 담담하게 소박한 이야기를 전한 그녀의 대형 설치 작품 ‘Return to Earth’는 전시장 천장에서 바닥까지 검은 실이 얹혀 내려오며 삶과 무한함에 대한 작가의 긴 이야기를 압축한다. 기계와 유기체의 아름다운 사이보그를 발표하며 유명해진 이불은 신체를 감싼 주변 환경을 이야기하며 담론을 거대하게 확장하는 중이다.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거나 그란란드에 온 것처럼 확장되는 설치 작업을 볼 때마다 다음 행보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가. 그녀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아작까지는 물리적으 로 불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상상을 해야 확장이 될 텐데 말입니다. 즉 상상하는 모든 걸 물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녀는 자신이 생각한 모든 것이 실현되기에 슬프다고 말했다. 이불이라는 이름으로 놀림받던 어린 시절, 가정 환경도 그랬고 여러 면에서 남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자유에 가까워지기 위해 작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완전히 부서뜨려 생기는 낙차 에너지가 있듯, 도저히 버릴 수 없을 때까지 물고 갔다가 무너져 감칠만 남으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뭘까’ 궁금해서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끌고 가보는 걸 즐기는 사람. 작업할 때 입는 옷이 50벌쯤 된다는 이불 작가의 이번 전시는 ‘사이보그’, ‘아나그램’, 노래방 연작 등부터 2010년대 이후 발전된 ‘취약할 의향’과 ‘퍼듀’ 연작, 가장 최근의 조각 작품을 아우른다. 우주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 앞에서 명상을 하듯 아득한 기분에 휩싸일 것 같다. 글 김수진(프리랜서 에디터)



Exhibition in Focus

어린 시절 우리에게 책으로 만든 ‘비밀 기지’가 있었던 것처럼 작가들에게도 자신의 서사가 담긴 아지트 속 이야기가 있다. 〈읽는 인간〉의 저자 오에 겐자부로로는 평생의 보물 같은 책들을 회고했는데, 그는 책들과 삶을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그런 소중한 책들처럼 곁에 두고 싶은 ‘another 예술이 있다. ‘키아프리즈’ 기간에 열리는 현대미술가들의 비밀 기지 같은 전시가 예술 애호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스페이스K 서울, 배윤환 개인전 〈딥다이버(Deep Diver)〉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전 작서 안전벨트’는 게임 상황에서 떠오른 아이디어예요. 작업에 변화를 주고 싶던 때였는데, 게임 상황 당시의 어지러움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는 재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재난에 저도 한몫하고 있겠죠.” 아직도 소년처럼 보이는 배윤환 작가(b. 1983)는 개인전 〈딥다이버(Deep Diver)〉에서 원래 그가 추구했던 본질적인 작업으로 돌아왔다. 다채색을 배제한 ‘검은’ 서사로 말이다. 그에게 검은색이란 본인의 생각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색이라고. 검은색 아크릴, 목탄 등 전시장에 설치된 그의 작품들은 바닷속까만 심연 같다. 그 안에서 저마다 다양한 인간 군상과 동물이 섞여 세상을 향해 소리치며 얽혀 있다. 의인화된 동물과 사람이 함께 배에 올라타 파도를 맞고 있고 선원들이 오징어 먹물로 온통 뒤덮여 있다. 수많은 사건이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세계에서 각자의 폭풍우에 휘말려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표정이 흥미롭다. 각자의 불안과 저항을 표현했는데, 특히 광부나 어부, 양봉업자 등 노동자가 많이 등장한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시대의 불안과 저항을 표현하는 작가는 프랜시스 베이컨에게 영감을 받은 ‘서커스’ 연작도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였다. 바다 한가운데 온몸이 석탄이 묻어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 작품 ‘우린 잘 지내고 있어’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것 같다. 작가가 직접 조각한 인형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업도 눈길을 끈다.

전시명 〈딥다이버(Deep Diver)〉 전시 기간 11월 9일까지 홈페이지 [www.spacek.co.kr](http://www.spacek.co.kr)



#송은, 한국 작가 그룹전 〈파노라마〉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국작가 해외집중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송은과 함께 기획한 〈파노라마〉전은 동시에 한국 작가들의 다양한 비밀 기지를 엿보는 느낌을 선사한다. 권병준, 김민하, 박민하, 이까바위쿠르르, 이주오, 최고은, 한선우, 아프리카아시아 컬렉티브(최원준, 문선아) 등 8팀이 참여해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풀어냈다. 네덜란드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11년 귀국해 음악, 연극, 미술을 넘나들며 ‘소리’에 기반한 뉴미디어 퍼포먼스를 기획·연출하는 권병준 작가의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은 지하 전시장을 가장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작가가 채집한 다양한 소리를 전시장 곳곳을 옮겨 다니며 들을 수 있는데, 아이의 말, 자연에서 온 소리, 이방인의 대화 등이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소리의 편집만으로 시각적 현실의 이미지가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설치, 사진, 영상 등을 아우르는 이까바위쿠르르의 ‘미륵’ 시리즈는 존재에 대한 사유로 이끈다. 미륵의 손바닥을 조각한 ‘부처님의 하이파이브’는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미륵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다. 사라진 사찰이나 마을 어귀와 들뜬에서 방치된 채 그 자리 돌로 존재하는 미륵들은 사진 작업에서 다시 한번 존재를 환기시킨다. 버려졌기에 자유로워진 미륵들은 우리에게 ‘버려지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한다. 디지털 도구와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혼용하며 작품을 제작하는 한선우 작가는 모공을 응시시키는 살점, 가닥진 머리카락 등 파편화된 신체와 인공 구조가 뒤섞인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으로 자동화된 가사 노동에 대한 환상을 얘기한다. 아프리카아시아 컬렉티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청소년간의 교류를 상상하며 작품을 위한 ‘걸 그룹’을 만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마음이 편해진다. 글 김수진(프리랜서 에디터)

전시명 〈PANORAMA〉 전시기간 10월 16일까지 홈페이지 [www.songeunartspace.org](http://www.songeunartspace.org)



#롯데뮤지엄, 옥승철 개인전 〈옥승철: 프로토타입(Prototype)〉 반복되고 복제되는 얼굴은 가짜일까? 디지털 세상에서 진짜는 누구일까? 혹은 당년도 무한히 복제된 자아를 지닌 건 아닌가? 이 물음을 지속적으로 던져온 옥승철 작가(b. 1988)는 텅 빈 눈에 표정 없는 얼굴을 고집스럽게 사랑한다. 진위를 알 수 없는 똑같은 얼굴들이 3D 조각과 회화로 펼쳐지는데, 작가에게는 그저 ‘프로토타입-1’, ‘프로토타입-2’일 뿐이다. 인물을 추종하고 레이어로 분리하는 디지털 작업 과정을 정교한 회화로 되살린 프로토타입은 완전한 소년도, 소녀도 아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를 부여받기 힘든 존재 같지만, 이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솔직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스스로 ‘복제된 존재’라고 인정하기에 오히려 순수하달까. 사실 우리도 원본 없는 복제의 무한 증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전시 공간은 소프트웨어 유통 방식인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를 모델로 설계해 마치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차가운 가상공간으로 들어온 듯 연출했다. 만화나 영화, 게임 등에서 복제되고 변주되는 디지털 이미지가 주인공이기에 진지한 예술로 생각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그의 손을 하나 하나 거친 ‘프로토타입’의 얼굴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존재다. 특히 3D로 만든 조각은 아프로디테의 목이 절린 것처럼 거꾸로 특 뭉려져 있는데, 그리스 신전 어느 공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작가는 메두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옥승철은 꾸준한 팬텀을 지닌 작가이기도 한데, 최근 〈나의 총동구애 연대기〉를 연 영화평론가 김도훈의 가장 소중한 컬렉션 1위도 작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색상의 하나인 ‘크로마키 그린’ 색의 프로토타입 조각이다.

전시명 〈옥승철: 프로토타입(Prototype)〉 전시 기간 10월 26일까지 홈페이지 [www.lottemuseum.com](http://www.lottemuseum.com)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 마크 브래드포드 대규모 회고전 30대에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뒤늦게 미술계에 입문한 마크 브래드포드(b. 1961)는 2021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작가다. 흑인, 쿼어, 도시 하층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작품에 녹인 대형 작품에는 그의 서사가 빠르게 담겨 있다. 모친의 미술실에서 사용하던 반투명 파마 용지(end papers)를 작품의 주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거리에서 수집한 전단이나 신문지 등을 쌓고 굽어내고 찢어낸다. 그래서 그의 여정과 역사가 반영되는 추상미술은 ‘사회적 추상화’로 불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추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회적 기억의 추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회적 역사를 언제나 유식하고 미술사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스튜디오 안으로 가져와 문을 걸어 잠그고 미술사와 한바탕 싸우며 작업한다. 모두 자신의 몸과 기억에서 온 것들이다. 사회적 불균형 속에서 ‘그저 나 자신이고 싶었다’고 말하는 그는 사실 억지로 평등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냥 제 회화와 그걸 둘러싼 생각을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갔을 뿐이죠. 추상은 저에게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주었어요. 애써 정면으로 말하지 않아도, 옆길로 비껴서 말할 수 있는 공간 말이죠.” 그 공간에 관람객이 자연스레 걸어 들어왔으면 하는 그의 바람은 전시의 서막을 여는 작품 ‘떠오르다’에 담겨 있다. L A 작업실 주변 거리에서 수집한 부산물을 긴 띠 형태로 만들어 전시장 바닥 전체를 덮는 회화적 설치물은 관람객들에게 마음껏 걸닐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그의 서사는 이제 자연재해, 기후 위기, 젠트리피케이션, 자본 권력의 구조를 향하고 있다. 대다수 작품이 대형인 만큼 각각의 스토리도 진실을 밝히는 진중한 다큐멘터리 같다. 20여 년에 걸친 그의 작업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독일 베를린의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이 주최한 순회전의 일환이다.

전시명 〈Mark Bradford: Keep Walking〉 전시 기간 2026년 1월 25일까지 홈페이지 [apma.amorepacific.com](http://apma.amorepacific.com)





(위부터 차례대로) 불가리 디바스 드림 워치  
로마의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골드빛 모자이크  
다이얼, 다이아몬드 베젤과 링크, 레드 핸즈와  
엘리게이터 스트랩 등이 클래식하면서도 멋을  
배가한다. 6천5백만원. 문의 02-2056-0170  
피아제 라임라이트 칼라 워치 지름 32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6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핑크 골드 밀라네즈 브레이슬릿을  
더했다. 8천50만원. 문의 1668-1874  
디올 타임피스 라 디 디 디올 프레스스 인덱스를  
과감히 생략하고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블루 사파이어로 장식해 주얼리 못지않은 화려함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반클리프 아펠 레이다 페어링 로즈 골드 워치  
기묘세 패턴의 자개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수놓아 핑크빛 밤하늘을 형상화하고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신비로운 요정 모티브를  
담았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까르띠에 클래쉬 [엔리미티드] 워치 기하학적인 옐로  
골드 스타드와 유려한 보랏빛 비즈 골드의 결합이  
극적인 생동감을 전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쇼메 호텐시아 워치 2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3개의 꽃 장식을 추가한  
후 그린 래커 다이얼로 마무리했다. 9백만원대.  
문의 02-3442-3359 에디터 김하얀

# Timeless Shine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스톤 장식과 각 브랜드의 정교한 기술력으로 빛어낸 찬란하고도 신비로운 주얼리 위치의 세계.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 Romantic Stones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게 하는 컬러풀한 스톤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니 미모사 링 복잡한 형태의 식물 미모사를 매종만의 섬세한 스톤 세팅 노하우로 디테일하게 완성했다. 화이트 골드에 사파이어를 세팅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그라프 3.17캐럿 오벌 컷 루비 링  
GUB 인종받은 비기열 버마산 루비가 아름다운 레드빛을 발하는 링으로 주위에 총 1.61캐럿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38개 세팅해 우아함을 강조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2256-6810 프레드 샹스 인피니 크레이지 8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3.2캐럿 페어 컷 그린 사파이어 1개를 세팅하고, 양옆에는 총 0.76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80개를 세팅한 포스텐 모티브를 더해 아이코닉한 감성을 부여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불가리 하이 주얼리 아이링 로즈 골드 소재에 총 10.8캐럿의 페어 컷 모가나이트 10개와 총 6.25캐럿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 20개, 총 0.62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2개, 총 3.27캐럿의 바르톨 루벨라이트 48개, 그리고 다이아몬드  
3.02캐럿을 파베 세팅해 화려하게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105-2120 부쉐론 핀다 링 매종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면서도 주얼리를 넘어 부적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 애니멀 컬렉션 링. 18K 화이트 골드에 총 2.4캐럿의 2백 개  
블랙 사파이어, 총 1.79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백83개, 총 0.48캐럿의 56개 차보라이트로 완성한 판다기 3.4캐럿 쿠션 컷 그린 투르말린 1개를 안고 있다. 5천만원대. 문의 02-3479-6028 포멜라로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링  
6.75캐럿에 달하는 눈부신 라즈베리 컬러 루벨라이트를 센터에 세팅하고 베젤에 2백2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을 더한 각테일 링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스티븐 헬스터 지터 버그 링 브랜드만의 워트 있는 감성을  
잘 표현한 링으로 옐로 골드에 블랙 오팔레스트와 귀초 크리스탈 헤이즈, 블루 에나멜, 스카키 블루 토파즈, 차보라이트 가닛과 다이아몬드로 버그 모양을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에디터 성정민



2025 F/W

Trend Report

for women & men

이번 시즌 패션 위크는 옷을 넘어 시대의 감각을 담아내는 무대였다. 과거의 화려한 장식은 현재의 트렌드로 재구성되고, 진화한 테일러링과

윤리적 가치가 담긴 소재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처럼 올해의 컬렉션은 단일한 서사보다 다층적 키워드의 조화로 더욱 선명한 얼굴을 드러낸다.

TREND 1

**See-Through Dresses**

과감해진 시스루 소재의 변주는 런웨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돌체앤가바나는 레이스와 시폰 소재를 사용한 브라셋, 슬림 드레스로 글래머러스하며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지방시의 'GIVENCHY 1952' 로고 장식 시스루 캣 슈트는 보디 라인의 곡선미를 한층 더 강조했다. 과장된 노출 대신 은근히 실루엣을 드러내는 시스루 록으로 세련된 관능미를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TREND 2

**Bohemian Fringe**

런웨이 위에서 자유와 낭만을 상징하는 프린지가 다시 주목받았다. 걸을 때마다 흔들리며 리듬을 만들어내는 프린지는 드레스나 비대칭 스커트에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사선을 사로잡는 역할을 했다. 베르사체는 실버 프린지가 활랑이는 보디콘 드레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에트로는 시그니처인 페이즐리 패턴 드레스에 롱 프린지를 더해 보헤미안의 정수를 선보였다. 에라가모는 미니멀한 셋업에 레드 컬러 프린지를 매치해 걸을 때마다 역동적인 바이브를 연출했다.

TREND 3

**Victorian Ruffles**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로맨티시즘이 한층 대담하게 부활했다. 샤넬은 하우스 특유의 트위드에 라플과 레이스를 겹겹이 더해 클래식한 여성성을 강조했고, 디올은 하이에네 블라우스와 레이스 장식을 더해 귀족풍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발렌티노와 맥퀸은 풍성한 프릴과 다채로운 플로럴 패턴, 그리고 드라마틱한 볼륨의 슬리브를 활용해 런웨이를 장식했다. 고전적 장식미가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온 시즌이다.

TREND 4

**A Symphony of Ribbons**

가장 사랑받는 포인트 장식 중 리본은 작년부터 화제가 된 발레코어의 핵심 요소로, 올해 런웨이 쇼에서는 개수나 사이즈 및 두께감을 조정해 색다르게 활용되었다. 발렌티노는 대형 보 장식을 스커트와 재킷에 적용해 드라마틱한 실루엣을 강조했고, 프라다는 이번 시즌 리본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구조적인 오브제로 풀어냈다. 견고한 울과 가죽, 그리고 드레스 위에 더한 리본 디테일은 실험적이면서도 모던한 무드를 완성했다.

TREND 5

**Fur Evolution**

이번 시즌 한겨울 런웨이를 장악한 것은 풍성한 퍼의 질감이었다. 윤리적으로 해석된 시어링은 폭스, 밍크, 세이불을 대체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펜다는 롱 코트와 숄, 블루종 등 다양한 퍼 아이템을, 미우미우는 패이크 퍼 스톨에 토트백과 클로슈 모자를 매치해 1960년대 무드를 선보였다. 질 샌더와 에트로는 강렬한 컬러와 그래픽 패턴으로 퍼를 새롭게 해석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TREND 6

**A Reinterpretation of Heritage**

브랜드의 역사와 시그니처를 재해석한 무대와 록이 눈에 띄었다. 루이 비통은 트렁크 장식과 모노그램 패턴으로 아이코닉한 스타일의 진화를 보여줬다. 펜다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과거의 역사적 공간 '비아 보르고노나(Via Borgognona)' 부티크와 상징을 소환해 재현했으며, 구찌는 올해로 탄생 70주년을 맞이한 홀스빗 1955 백을 새로운 울트라 소프트 버전으로 선보였다.

TREND 7

**The Return of Checks**

이번 시즌 체크는 단순한 패턴을 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도 했다. 프라다는 컬러풀한 타탄체크 코트를 슬림한 핏츠와 매치해 핑키한 느낌을 더했으며, 바버리는 전통적인 헤리티지 체크를 새롭게 재해석한 오버사이즈 코트와 마블러를 제시해 클래식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한편 톰 브라운은 헤링본, 아가일 등 여러 종류의 체크 코트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TREND 8

**Purple Basil**

이번 시즌 런웨이를 대표하는 컬러 키워드는 단연 퍼플 바질(Purple Basil). 단순한 보라가 아닌, 허브 바질을 닮은 깊은 톤으로 신비롭고 차분한 생명력을 드러낸다. 구찌는 롱 코트와 셋업에, 베르사체는 새틴 드레스와 블라우스, 아우터에 적용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미우미우는 니트와 스커트, 롱 삭스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풀어냈다. 은은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퍼플 바질은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포인트 컬러로 주목된다.

TREND 9

**Leather Layers**

매년 패션 위크에서 빠지지 않는 클래식 소재, 레더가 다시 주목받았다. 에르메스는 은은한 광택의 가죽 코트에 간결한 지퍼, 스냅 장식을 더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루이 비통은 천연 가죽 바시터 재킷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맛을 표현했다. 토조는 레드 브릭 컬러의 가죽 트랜치코트를 선보이며 장인 정신과 소재의 미학을 드러냈다.

TREND 10

**Tailoring 2.0**

정교한 재단의 진화를 보여준 테일러링이 이목을 끌었다. 디올 맨은 리본, 롱스커트 등을 활용한 슈트 디자인을 제시했고 슬림 슈트에 은은한 새틴 라펠로 완성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차분한 컬러와 벨벳, 울 플란넬, 트위드 같은 소재로 이탈리아식 테일러링의 정수를 드러냈다. 지난 시즌에 단정한 '슈트'의 본질에 집중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날렵한 어깨선과 과감한 비율로 한층 진화했다. 에디터 신정임

TREND 1

FERRAGAMO

TREND 2

DOLCE & GABBANA

TREND 3

CHANEL

TREND 4

FENDI

TREND 5

VALENTINO

TREND 6

PRADA

TREND 7

GUCCI

TREND 8

LOUIS VUITTON

TREND 9

HERMÈS

TREND 10

DIOR MEN



New

아는새 품격 다가온 그 계절, 그 시간. 그리고 그녀의 가을 패션 포트폴리오.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슬터 플리츠 디테일의 레더  
재킷, 플러워 슬림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왼쪽 페이지)  
레드 더블브래스트 코트, 브라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토즈.



Defined



트위드 소재의 재킷과 쇼츠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오른쪽 페이지)  
세브론 더블 코트 가격 미정,  
핑크 코트 셔츠 2백40만원,  
핀스트라이프 물리네 울 미니스커트  
3백20만원, 앤디크 레드 펌프스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울 소재의 집업 카디건 5백10만원,  
슬림 핏 니트 드레스 1백94만원,  
나일론 소재의 롱스커트 5백10만원,  
트레이그립 어반스톨 스니커즈 1백25  
만원, 울 소재의 스카프 4백34만원,  
바라클라바 86만원 모두 몽클레르  
X EE72 by 에드워드 에네폴.

(왼쪽 페이지)  
울 소재의 페어 아일랜드 패턴 크루넥  
스웨터, 터틀넥 톱, 7개버딘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램 스킨과 캐시미어 소재의  
드레스, 글러브, 레더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 페이지)  
더블브래스트 벨티드 코트, 블랙  
레이스 톱, 데님 팬츠, 블랙 플랫  
슈즈 모두 가격 미정 켈로에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이아영  
모델 Nasty, Elsa, Uliana, Arin,  
Jordan, Amel, Kamilla, Cristina  
(Jennifer Model, Exclusiveseoul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켈로에 02-6905-3670  
샤넬 080-805-9628  
프라다 02-3442-1830  
루이 비통 02-3432-1854  
셀린노 1577-8841  
에르메스 02-542-6622  
몽클레르 X EE72 by 에드워드 예넌물 0030-8321-0794  
토즈 02-3438-6008



# Get The List

클래식이 어울리는 계절, 가을을 위한 쇼핑 리스트.  
PHOTOGRAPHED BY JEONGSEOKHEON

**VAN CLEEF & ARPELS**  
아름다움과 순수함, 충만함의 상징인 연꽃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로터스 컬렉션.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6.81캐럿을 세팅해 완성한 로터스 클립 펜던트 라지 모델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문의 1877-4128

**LOUIS VUITTON**  
하우스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익스커션 백팩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와 장식적인 버클 및 드로스트링, 여러 개의 포켓 등이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매력을 전하는 백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BOTTEGA VENETA**  
부드러운 실키 카프 레더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성을 전하며 하우스의 시그니처 노트 디테일을 포인트로 적용했다. 긴 어깨끈으로 숄더, 토트, 크로스보다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실용적인 차오 백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94

**BVLGARI**  
여성스러운 매력을 세련되게 표현한 부채 모티브가 매력적인 컬렉션. 18K 옐로 골드 소재에 블랙 오피스 주위로 섬세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시크함과 동시에 우아함을 부여하는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5백45만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MIU MIU**  
투박한 스퀘어 세이프에 위상을 넣은 가죽 소재로 빈티지하면서도 순수한 소녀의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가죽 톱 핸들 백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GRAFF**  
꼬임 디자인이 특징인 스파이럴 컬렉션의 뱅글로 더 볼드해진 매력을 자랑한다. 옐로 골드 뱅글 가운데에 다이아몬드 총 2.26캐럿을 세팅해 포인트를 더했다. 4천23만원 그라프. 문의 02-2256-6810

아이스틴트 김보민

**CHANEL BEAUTY**  
강렬한 컬러와 빛나는 샤인 효과, 촉촉한 피니시로 이름난 루주 코코 플레쉬의 새로운 컬러 825 비쥬, 은은한 핑크 컬러로 부담스럽지 않고 생기 있는 립 메이크업을 연출한다. 3g 5만9천원 샤넬 뷰티. 문의 080-805-9638

**HERMÈS**  
등근 토와 큰 굽으로 소녀미를 풍기는 디자인의 재키 50 펌프스. 카프 스킨 소재에 Hapi 버클로 포인트를 주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한다. 1백91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성정민



튼 다운된 그린 컬러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오버사이즈 테일러드  
재킷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의도적으로 식제한 고리 없는  
지퍼 디테일이 특징이다.  
퍼 인감을 적용해 보온성이  
뛰어난 카프스킨 소재의  
보머 재킷 8백9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 Leather Syndrome

깊고 그윽하며 훨씬 더 간결하게. 가을, 어김없이 등장한 남자 레더 아우터.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칼라리스, 스터드 장식, 빈티지  
워싱 등이 조화롭다. 지퍼와  
스냅 단추를 추가해 입고  
벗기 편한 할소가죽 카라테  
재킷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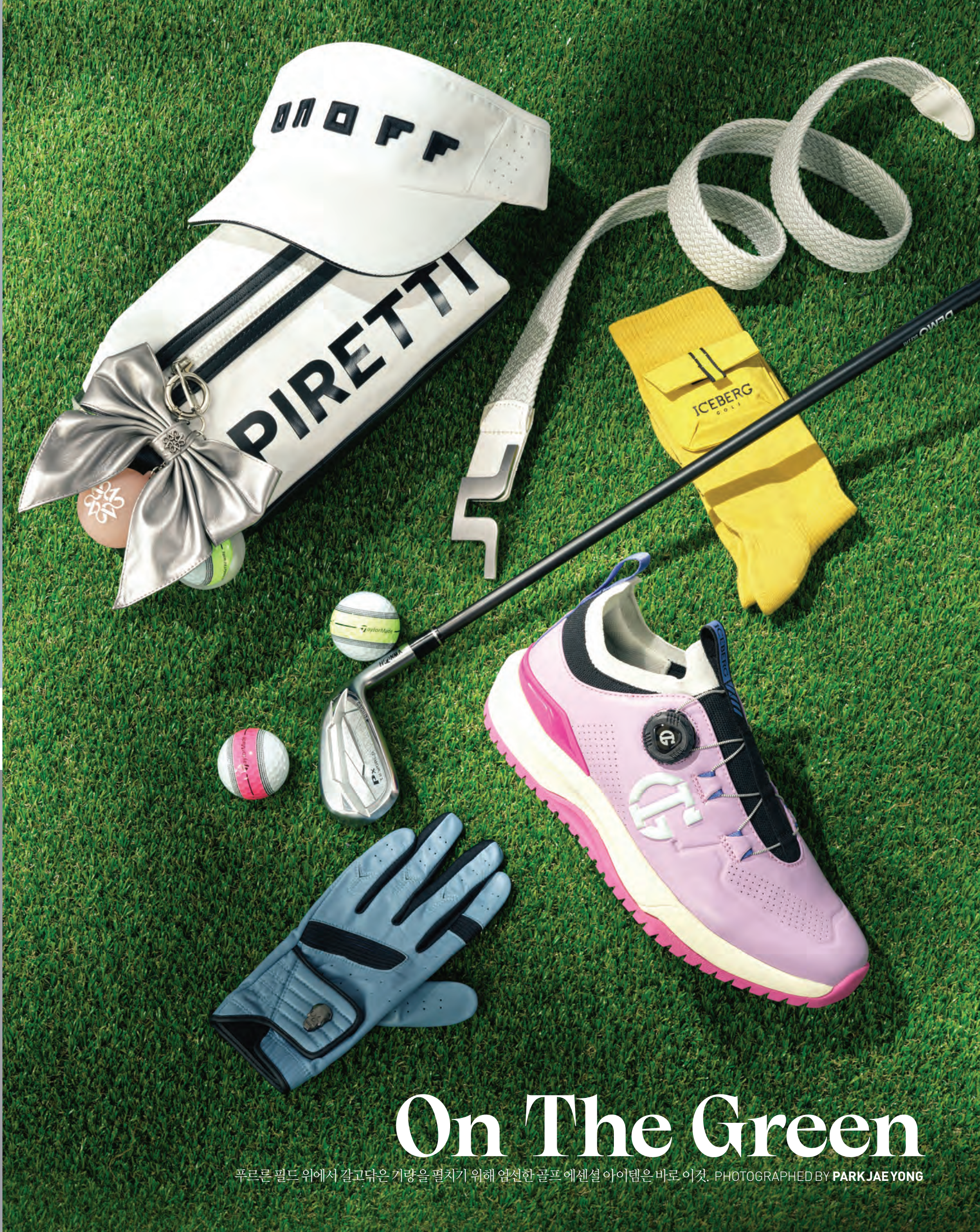


긴 소매와 하이 네크라인,  
크롭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양가죽 소재 재킷 가격  
미정 **릭 오웬스**. 문의  
02-3479-1353  
에디터 **김하얀**



# On The Green

푸르른 필드 위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기 위해 압축한 골프 에센셜 아이템은 바로 이것.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안감으로 통기성 있는 메시 소재를 선택하고 쓰고 벗기 편하도록 벨크로를 추가한 블랙 & 화이트의 선바이저 가격 미정 **온오프**. 문의 02-531-1991. 2개의 지퍼와 앞뒤로 추가한 포켓으로 수납력을 높인 더블볼 지퍼 파우치 25만원 **피레티**. 문의 1644-7781. 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실버 리본의 실리콘 2구 볼 케이스 9만8천원 **세인트앤드류스**. 문의 1670-2807. 브레이드 스트랩에 무량 버클을 더한 남성 벨트 20만원 **제이린드버그**. 문의 02-546-1996. 남녀 공용으로 착용 가능하며, 메시 소재와 밴드, 그리고 사이드 포켓을 적용해 라운딩에 최적화된 옐로 코튼 양말 6만9천원 **아이스버그 골프**. 문의 02-2135-5773. 비거리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타격이 장점인 투어월드 TW767 PX 아이언 가격 미정 **혼마골프**. 문의 02-2140-1800. 신발끈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링 슈레이스를 적용해 밀착감을 선사하는 양가죽 소재 인드레이 우먼 슈즈 45만원 **아이스버그 골프**. 문의 02-2135-5773. 편안한 손목 움직임을 고려해 설계한 슬릿 디테일이 특징인 라스트 프리 글러브 5만5천원 **에메이징크리**. 문의 02-2135-9174. 캐스트 우레탄 소재의 네온 그린과 핑크 컬러 골프 볼(컬러별 3개 1세트) 각 가격 미정 **테일러메이드**. 문의 02-6410-8051 에디터 **김하얀**



# Super Moisture

그 어느 때보다 혹독했던 날씨를 견뎌온 소중한 피부에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야 할 때.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왼쪽 아래부터 차례대로) 프라다 뷰티 어그멘티드 스킨 크림  
아답토텐 스마트 테크놀로지™(Adapto.gn Smart Technology™)  
를 적용해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고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탄력 보습 크림 60ml 55만원대. 문의 080-835-0097  
아우구스티누스 바더 더 엘티메이트 수딩 크림 폭신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울트라 리치 포뮬러로 자극받은 피부의  
빠른 진정을 돕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SOS  
크림 50ml 43만5천원대. 문의 02-6904-0589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 쥘 드 로즈 액티베이터드 세럼  
특독한 기후에 맞서 피어난 로즈 드 그랑빌의 생명력을 담은  
뉴트리-로사팜타이드 성분과 두 가지 히알루론산 성분을 함유해  
풍성한 수분 충전 효과와 외부 자극에 대한 보호 효과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세럼 50ml 55만7천원대. 문의 080-342-9500  
라 메르 밸런스 트리트먼트 로션 미라클 브로스™ 성분을  
함유한 프레시 리퀴드 하이드로젤 제형으로 피부 속 피지는  
제거하고 수분만 가득 채워주어 건강하고 균형 있게 가꿔주는  
트리트먼트 로션 150ml 26만2천원대. 문의 02-1644-3947  
샤넬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 화이트 캐멜리아와 히알루론산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더 업그레이드된 세럼. 피부 속 수분  
장벽을 강화해 강력한 보습 효과를 선사하며 맑고 건강한 피부로  
탈바꿈시켜준다. 50ml 19만6천원. 문의 080-805-9638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하이드로 에멀전 브랜드 시그너처 성분인  
캐비아 마이크로-뉴트리언트와 혁신적인 캐비아 하이드로에센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셀룰라 콤플렉스™를 함유해 밀도 높은 수분과  
탄력을 제공한다. 70ml 58만4천원대. 문의 02-6390-1170  
랑콤 제니피끄 로션 엘티미트 리퀴드 리페어 세럼 인 에센스  
고농축 에센스를 함유한 토너로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필터를  
씩은 듯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며 리페어 효과를 주고 노화  
징후를 케어해준다. 150ml 10만5천원대. 문의 080-835-0094  
발랑 프라인 리제네라 II 극도로 손상된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지질 복합체로 피부 장벽을 견고하게 만들어  
뛰어난 진정 효과를 선사하며 최상의 피부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회복 크림 50ml 42만원대. 문의 070-4352-5203 에디터 성정민



김재연 특집사진가



# Relaxing Ritual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며 지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시간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내일을 위한 여유를 불러넣는 나이트뷰티 루틴.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젤랑 아베이 로얄 스칼프 앤 헤어 유스 오일 인 세럼 꿀을 통한 리페어 기술력과 D-판테놀 콤플렉스 덕분에 두피와 모발 강화에 효과적이다. 50ml 21만5천원. 문의 080-343-9500 록시땅 퓨리피잉 프레시니스 샴푸 불쾌한 두피 냄새는 물론 과도 분비된 유분을 케어한다. 300ml 3만6천원. 문의 02-2054-0500 오리베 세린 스칼프 엑스플리에이팅 스크럼 두피의 죽은 세포, 먼지 등을 제거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모발을 부드럽게 가꿔준다. 125ml 8만7천원. 문의 1644-4490



데코르테 플러핑 립 세럼 01 흰 백합 추출물 등을 함유해 끈적임 없는 보습 효과와 자극 없는 플러핑 효과를 발휘한다. 7ml 4만2천원. 문의 080-568-3111 골레드보 보떼 프로액티브 립 트리트먼트 입술 온도에 부드럽게 녹는 텍스처가 남디르며 10시간 이상의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g 7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맥 립글라스 볼로우 플러핑 오일 코코넛 오일이 입술에 보습을 채워주고 진저와 멘톨 성분이 입술의 탄력과 상쾌함을 유지해준다. 5ml 3만8천원. 문의 1644-3748 구찌 뷰티 볼 누리셀 워니베르셀 보태니컬 오일과 버터 블렌드를 함유한 무향의 밤 타입으로 건조한 부위라면 어느 부위든 사용 가능. 8g 8만1천원. 문의 080-850-0708 에디터 김하얀





버버리 뷰티 브릿 사인 634  
루바브 글로시한 립밤 제형이라  
건조한 입술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마무리해주고 차분한 핑크 컬러라  
데일리로 바르기 좋다. 3g  
5만7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신정임



시슬리 선리아 쉐영 쏘레르 앙티-아주 물과 열, 땀에 강한  
자외선 차단제, 홍조류 추출물과 아테노신 등 덕분에 피부  
탄력과 스킨케어 효과는 물론 주름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50ml 38만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김하얀



NEW PERFUME  
다올 뷰티 미스 다올  
에센스 부담스럽지 않은  
페미닌한 향으로  
블랙베리의 달콤한 내음이  
재스민, 우디 오코와  
조화를 이룬다. 50ml  
23만1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하얀



# Editor's Pick

나만의 뷰티 리추얼을 완성해볼 시간.  
최상의 컨디션을 선사해줄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저스트 에즈 아이엠 헤어 밀크 썸, 아몬드, 콩 등 식물 유래  
성분이 들어 있어 손상된 모발을 효과적으로 케어해주고  
바른 후 물로 행구지 않아도 돼서 간편하다. 130ml 2만4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신정임

## NEW SERUM

오에라 멀타-베네핏  
캘리브레이터 동봉된 패드에  
적서 7초 동안 피부에  
올려두어 사용하는 제품.  
며칠간 부지런히 사용하니  
무너진 피부 밸런스가  
맞춰진 느낌이다. 30ml  
19만5천원.  
문의 1800-5700  
\_by 에디터 성정민



다이스 오메가 하이드레이팅 오일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이스 Oi7™ 블렌드(Dyson Oi7™ blend)'를 함유해  
손상된 헤어 케어 오일로 제격이다. 30ml 7만9천원대.  
문의 1588-4253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샤넬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립 오일  
럭셔리한 립 전용 오일로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텍스처가  
일품. 7ml 39만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성정민



## NEW CAND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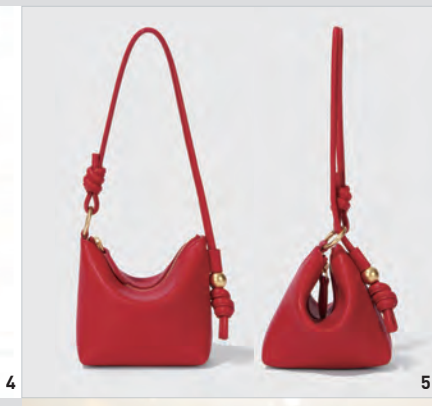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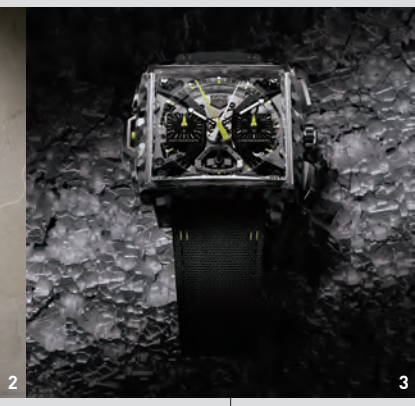
토아이 왁스 디퓨저 어그레스티브 태우는 동안  
시더우드와 여름 소나무, 어린 야생화의 조화로  
푸르른 소나무 숲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왁스  
디퓨저. 80g 2만5천원대. 문의 010-5549-9383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로라 메르시에 트랜스루센트  
하이드레이팅 세팅 스프레이  
울트라 블러 워터프루프 제형이라  
덥고 습한 날씨에 공들인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고  
피뿔결을 보송하게 만들어준다.  
100ml 8만3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신정임



룩시앙 버베나 아이시 샤워젤  
멘톨이 함유되어 기분 좋은  
상쾌함을 선사하며,  
아이코닉한 버베나 향이  
지속되어 은은하게 즐길 수  
있다. 250ml 4만7천원대.  
문의 02-2054-05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1 **샤넬 뷰티** 가브리엘 샤넬 보디 오일 샤넬 뷰티  
에서 가브리엘 샤넬 보디 오일을 출시했다. 새틴처  
럼 실키한 제형으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매끈  
하게 관리해주며, 스프레이 타입으로 끈적이지 않  
고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기분 좋은 촉촉함과 부드러  
움을 선사한다. 문의 080-805-9638

2 **다미아니** 하이 주얼리 컬렉션 공개 이탈리아 하  
이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에서 하이 주얼리 컬렉  
션 'Ode All'Italia'를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지중해  
해안의 푸른 물결, 자연의 장엄함 등 이탈리아 풍경  
의 대표적인 3가지 요소를 담아냈다. 문의 02-515-1924

3 **태그호이어** 모나코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  
프 스위스 럭셔리 워치메이커 태그호이어에서 모나  
코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했다. 독자  
적으로 개발한 그레이드 5 티타늄 합금 소재 'TH-  
티타늄'으로 제작한 케이스를 사용했으며, 86g의  
무게로 경량성과 견고함을 자랑 한다. 문의 02-3479-6021

4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바니 X 반스 컬래버  
이션 발렌티노에서 반스와 협업해 스니커즈를 출시  
했다. 1966년에 처음 선보인 반스 아센텍을 바탕으  
로 새롭게 해석해 여성과 남성을 위한 6가지 모델  
로 선보였다. 반스의 시그니처 체커보드 패턴에 메  
종의 V 로고를 더한 패키지에 제공된다. 문의 02-2015-4655

5 **래트 포코** 백 참 북유럽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  
감받은 브랜드 래트에서 포코 참 백을 선보였다. 상  
단 지퍼로 안정감 있는 수납이 가능하며 골드 메탈  
장식 디테일이 특징이다. 스트랩에 스토퍼와 원터치  
O링이 있어 자유롭게 길이를 조절해 다양한 스타일  
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800-5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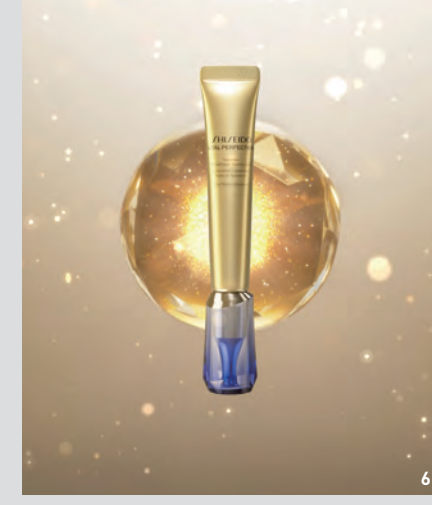
6 **시세이도**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인텐시브 링  
클스팟 트리트먼트 A+ 시세이도에서 시세이도 바  
이탈 퍼펙션 인텐시브 링클스팟 트리트먼트 A+를  
출시했다. 레티놀 파생 성분이 아닌 순수 레티놀 성  
분과 사플라워드™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멜라  
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해 기미 생성을 억제  
하고, 이미 생성된 기미가 번지지 않도록 케어해 주  
름 케어는 물론 미백에 도움을 줌으로써 최상의 피  
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80-564-7700

7 **포멜라토** 이코니카 컬렉션 포멜라토를 상징하는  
불규칙한 다이아몬드 세팅 기법과 골드 세공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코니카 컬렉션을 선보였다.  
강인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체인 모티브로  
제작된 다양한 디자인의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이  
어링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0030-8321-0441

8 **반클리프 아펠** 플라워레이스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에서 화관을 모티브로 탄생한 플라워레이스 컬  
렉션을 선보였다.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사용했  
으며, 둥근 셰이프로 꽃을 우아하게 표현한 실루엣  
이 특징이다. 이어링, 펜던트 등 5개의 주얼리 피스  
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1877-4128

9 **키톤** 2025 F/W 남성 컬렉션 이탈리아 럭셔리 브  
랜드 키톤에서 2025 F/W 남성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Collectors of the Essence of Living'  
을 콘셉트로 도시적인 클래식 룩을 전개했다. 코트,  
니트웨어, 팬츠, 슈즈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전국 키  
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7-5444

10 **시몬스** '신라모노그램 강릉'에서 만나보는 시몬  
스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의 매트리스를 이제 '신  
라모노그램 강릉'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객실에 비치  
한 제품은 대표적인 컬렉션, 뷰티레스트다. 신체 움  
직임에 단계적으로 반응하는 더블-포켓스프링을 매



트리스 가장자리에 배열한 더블 에지 시스템을 적  
용해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듯한 안락함을 선사  
한다. 문의 1899-8182, www.simmons.co.kr

11 **로로피아나** 엑스트라 백 L23 이탈리아인 하이엔  
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엑스트라 백 L23을  
공개했다.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길이 조절이 가  
능해 핸드백 또는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할 수 있  
으며, 딥 퀴멜, 선데이 모닝, 도브, 라이트 매스틱,  
다크 초콜릿 리코리스 등 다양한 컬러 구성으로 선택  
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6200-7799

12 **셀렌느** 뉴 라기지 백 셀렌느에서 2010년 피비  
파일로가 처음 디자인한 아이코닉 라기지 백을 모  
티브로 뉴 라기지 백을 선보였다. 스마일 디테일의  
포켓이 특징이며 옆으로 넓은 형태의 안정감 있는  
이스트 웨스트 스타일의 오버사이즈로 선보였다.  
가족 제품을 향한 장인 정신과 소재의 유연함을 자  
랑한다. 문의 1577-8841



\* 상영시간(90분~120분), 길어짐(30분), 길어짐(30분), 신정임(20대 북유럽), 김보민(20대 지, 북유럽)





SUBLIMAGE  
L'EXTRAIT DE NUIT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뉐, 강력한 리페어 효과

CHANEL